



**“이생에서 받을 수
있는 가장 위대한
찬사는 성약을
지키는 자로
알려지는 것입니다.”**

러셀 엠 넬슨 회장, 2011년 10월 연차 대회

(“리아호나”, 2011년 11월호, 88쪽).